

# 국민건강위원회 출범과 추진방향

At the Beginning of "Committee of Health for Nation, KMA"



---

허 갑 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Huh, Gap Bum**

Chair, Committee of Health for Nation, KMA / Honorar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E-mail : k

---

**J Korean Med Assoc 2006; 49(11): 970 - 3**

## Abstract

The WHO defines "Health" a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Now, it is recognized comprehensively including spiritual area. The trends of diseases have been also changed from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to life-style related diseases. Prevention in common life is more important than before.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has actively taken a part in public health promotion and in other activities to come closer to public. As a part of these efforts, Committee of Health for Nation was organized as a special committee in June and it has nine sub-specialty committees under its umbrella. Sub-specialty committees have been organized by top experts in their respective fields, including allergy/atopy, food safety, cancer, metabolic syndrome, environment, anti-tobacco committee and so forth. They are taking the lead in producing guidelines for both physicians and patients against certain diseases and deliver the most reliable information to public in the event of controversial issues like mass food-poisoning in schools, where people just get confused with overflow of different views. The committee also aims to summit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in its policy making process for better operation of national health system as a way of delivering voices from the forefront of healthcare.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Well-being)으로 정의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적인 영역까지도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 국민건강위원회의 출범 배경

3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질병 구조는 전염병과 기생충 감염 등 후진국형 질병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 등 생활습관이 변화됨에 따라 악성 종양, 뇌심장 혈관질환 및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 질환(생활습관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양상의 변화는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국민 각 개인이 평소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의사는 환자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등 적절한 생활지침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이러한 질병구조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의사들은 이제 의료계 일선에서 느끼는 제도적 문제점과 보완책 등을 정부에 전달하여, 국민들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의사들이 오직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질병 예방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과 임무가 우리 의사들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맞이하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웰빙에 관심을 가지고 의료정보에 귀를 기울이

게 되었고, 의사들 역시 스스로 다양화된 역할과 임무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통로를 찾고 있다. 그러나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 늘어난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과학적이고 근거중심적인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고, 건강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제각기 다른 주장들이 난무하여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근자에는 비과학적인 사이비 의료나 근거가 없는 보약이나 영양제 등이 마구 등장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장동의 회장의 제안에 따라 "국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의학적 차원에서 근거중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경제 영역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 전문분야 의사들과 각계의 전문가들로 조직화하여 제 때에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중심체를 만드는 데 뜻을 모으게 되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되었으며,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때 바로 떠올리는 국민의 주치의로서, 또 국민건강의 수호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위원회는 위에서 설명한 패러다임 변화에서 온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과 올바른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많은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고자 한다.

## 건강관리위원회 경과

국민건강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위원장 허갑범)에 출범하여, 6월 16일 일차로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

고, 자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 별로 1인씩 총 13인을 중앙위원 겸 각 전문분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현재까지 감염, 공보, 금연/절주, 대사 증후군, 악성 종양, 식품안전/기능, 알레르기/아토피, 의료사회, 정신건강, 환경 등 10개 분야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각 전문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가 6~8인씩을 선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전문위원회 별로 수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암 분야 전문위원회는 유관 시민단체와 함께 매일 암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알레르기/아토피 분야 전문위원회는 각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알레르기 예방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금연/절주 분야 전문위원회는 금연 진료를 위한 소책자 제작을 비롯하여, 금연 상담을 위한 사이버 강좌를 기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환경 분야 전문위원회는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지난 9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여 여러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제 출범 6개월을 맞이하면서 본 위원회가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지난 11월 7일 제1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분야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장단기 사업계획을 한 자리에 모여 토의하고, 국민건강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향후 1년간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협 기획이사인 신동천 교수가 외국 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익 프로젝트나 우리의 국민건강위원회에 해당하는 단체의 활동상황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외국 의사회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일본의사회의 활동을 보면, 금연 운동은 일반인들을 위

한 교육자료로 팸플릿, 포스터, 비디오 뿐만 아니라 TV를 통한 캠페인을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을 억제하기 위하여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비디오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포하여 금연운동을 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사이타마현 의사회에서 “건강 사이타마”라고 하는 건강종합정보지를 발간하여 최신 의료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의사회의 활동내용이나 의료정책에 관한 지역 의사회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사회는 또 “전염병 위기관리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식중독, SARS같은 급성 전염병에 대한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사회의 활동 중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으로는 금연에 대한 사업을 들 수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미국의사협회에서 펼친 금연 캠페인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많은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에 확산된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도 중앙정부와 각 주의 금연 정책에 대해 미국의사협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미국의사협회의 활동으로는 국민들의 고혈압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염분섭취 줄이기 운동을 매스컴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내에 소금 섭취량을 현재의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에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사회는 1950년부터 AMA foundation을 통해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의학용어, 보험용어 등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Health Literacy”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마약중독, 성문제에 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도움

을 청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Helping Kids Talk About Their Problems", 젊은이들의 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올해에 금연 법이 통과되기까지 영국의사회의 금연에 대한 정책 건의와 대국민 캠페인 등 많은 전략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폭음과 같은 음주습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병에 대한 예방지침과 자살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의사회가 관여하고 있고, 재택간호와 간병인들에 대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의사단체들은 정부 정책의 일환인 국민건강 증진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2004년에 일반개원의(GP)의 수가체계가 개혁되어 총액계약제 및 QOF 제도(질 높은 의료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로 바뀌면서 GP들이 질병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주로 만성 질환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바뀌면서 GP들의 공중보건증진에 참여는 열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의료 선진국인 위의 세 나라에서는 유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신체적 질병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국민건강위원회 사업계획 및 비전

앞서 살펴본 외국 의사회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의협 국민건강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우선 지난 10월에 개최된 2006 세계의사회 필라네스버그 총회에서 "비만에 있어 의사의 역할에 관한 성명서"가 채택되어, 의사들이 비만 인구를 줄이고 국가간 사회, 문화적 상이성을 반영한 적절한 비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를 보건당국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등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과 효과적인 비만 예방과 퇴치를 위해 보다 철저한 계획과 실천전략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예를 들어 대시증후군 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활용한 사업을 수립하여 실행하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의 특성과 식습관을 반영한 비만, 특히 복부비만 예방 식단의 권장이나 규칙적인 신체적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세계의사회 필라네스버그 총회에서 채택된 "환경 문제에 있어 의사의 역할에 대한 성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 토양 및 대기 등의 오염에 환경전문위원회가 관여하는 것도 국민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의협 국민건강위원회가 각 전문 영역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8만 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고, 여러 의료단체들은 물론 많은 유관 사회단체들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㉞